

2022~2023

경 영 정 보 공 개

2023. 3. 31.

[목 차]

I. 2022년도(제59기) 결산	3
1. 재무상태표	3
2. 운영성과표	5
II. 2022년도(제59기) 주요 사업 실적	6
III. 2023년도(제60기) 예산	7
IV. 2023년도(제60기) 주요 업무 계획	9
1. 주요 추진 업무(부문別)	9

I. 2022년도 결산

1

재무상태표

□ 제59기 말, 총 자산 약 16억 8천만 원, 부채 약 9천백만 원, 순자산 약 15억 9천만 원

과목	제 59 기 (기준)	제58기(비교)
1. 자산		
가. 유동자산	1,608,570,320	1,585,731,809
(1) 당좌자산	1,608,570,320	1,585,731,809
- 현금 및 현금성자산	44,278,643	130,714,214
- 단기금융상품	1,550,000,000	1,450,000,000
- 매출채권	1,414,000	1,290,000
- 선급비용	637,239	578,250
- 미수수익	12,240,438	3,149,345
나. 비유동자산	70,847,910	70,847,910
(1) 유형자산	-	-
- 비품	-	51,911,680
- 감가상각누계액	-	-51,911,680
(2) 기타 비유동 자산	70,847,910	70,847,910
- 임차보증금	70,847,910	70,847,910
자산총계	1,679,418,230	1,656,579,719
2. 부채		
가. 유동부채	48,198,780	25,260,914
- 미지급금	28,101,780	15,969,384
- 예수금	20,097,000	9,291,530
나. 비유동부채	43,325,000	50,116,667
- 퇴직 급여 총당 부채	43,325,000	50,116,667
부채총계	91,523,780	75,377,581
3. 순자산		
가. 제약없는 순자산	1,587,894,450	1,581,186,410
나. 제약있는 순자산	-	15,728
순자산총계	1,587,894,450	1,581,202,138

- 총 수입 8억 3천 6백만 원(예산 대비 80.4%), 지출 8억 3천만 원(예산 대비 87.6%)으로 약 6백만 원 수지차 발생
- **(주요 이슈)** 코로나19로 인하여 6월 총회 미개최 및 국제계리사회 총회 온라인 개최(하반기 총회만 참석)로 관련 수입 및 지출 미발생, 다만 계리사법 제정 추진 및 계리보고서 제정 관련 지출 신규 발생
 - **(수입)** 당초 예산 대비 총 수입 약 1억 3천만 원 감소
 - 6월 심포지엄 미개최로 참가비 및 후원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에 따른 기타 수입 부분 8천 9백만 원 감소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오프라인 교육 제한으로 교육 수입 부분이 6천 5백만 원 감소
 -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 및 잡이익 증가로 해당 수입 부분 2천 4백만 원 증가
 - **(지출)** 예산 효율적 집행 및 비용 절감 달성
 -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과정 축소로 교육비 지출 약 5,700만원 감소, 6월 심포지엄 미개최로 지출 약 9,000만 원 감소(다만, 9월 스몰 심포지엄 개최로 약 4,000만원 지출 발생) 및 국제회의 온라인 참석으로 관련 비용 약 2,500만원 감소 등
 - 건물 임차료 절감으로 지출 약 5,000만원 감소 및 주요 행사 및 회의의 온라인 대체 및 인력 편재된 인턴 미채용 등으로 인해 경상비 약 4,000만원 절감

과목	제 58 기 (기준)	제57기(비교)
제약없는 순자산의 변동		
고유목적사업수입	836,851,927	860,877,459
1. 회비	669,400,000	660,400,000
2. 교육수입	106,545,947	167,375,000
3. 총회&심포지엄	21,150,000	200,000
4. 기타수입	39,755,980	32,902,459
고유목적사업비용	830,143,887	719,859,686
1. 일반사업비	298,054,633	144,879,064
2. 교육사업비	100,378,079	111,679,855
3. 인건비	320,679,425	291,338,295
4. 일반관리비	111,031,750	143,761,949
제약 없는 순자산의 증가(감소)	6,708,040	141,017,773
제약 있는 순자산의 변동		
고유목적사업수입		
1. 특별회비	-	-
고유목적사업비용	15,728	9,929,200
제약 있는 순자산의 증가(감소)	-15,728	-9,929,200
기초 순자산	1,581,202,138	1,450,113,565
기말 순자산	1,587,894,450	1,581,202,138

II. 2022년도 주요 사업 실적

1

2022년 주요 사업 실적

<p>계리실무기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계리실무기준 제5, 6호(KSAP 5, 6) 제정(2022.07) ○ IFRS17 계리적 가정 실무기준 실무사례 개정(2022.12) ○ IFRS17 계리보고서 제정(2022.12) ○ IFRS17 위험조정 측정방법에 관한 보고서 작성(2022.10) ○ IFRS17 현금흐름 실손보험 보고서 작성(2022.12)
<p>계리연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총 15개 과정 개설 : 신규 온라인 9개, 집합 6회 제공 ○ 2022년도 약 700여명 회원 계리연수원 교육 수강 * 22년 이전개설 온라인 170명, 22년 개설 온라인 440명, 집합 90명
<p>회원서비스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회원 확대(3,742명(+265명)), 회비납부 회원 증가(1,948명(+85명)) ○ 온라인 심포지엄, 스몰 심포지엄, 임원 조찬 세미나, 합격자 OT 등 개최 ○ IAK 회원 매뉴얼 발간(2022.7) ○ 제2기 IAK 서포터즈 운영 등
<p>계리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계리모형 개발 연구 용역(2022.6) ○ 2022 계리연구지원제도를 통한 연구 지원 ○ 2022 보험연합학술대회 주관
<p>국제협력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상반기 국제계리사회(IAA) 이사회 참석(온라인) ○ 2022 하반기 국제계리사회 이사회 참석(대면, 캐나다) ○ 2024 IAA 서울 총회 개최 일정 확정 및 준비위원회 가동 ○ SOA 등 해외 선진계리사회와 온라인 세미나, 오피니언 기고 등의 협업 ○ 관광 당국와의 적극적인 교류, IAA 서울 총회 지원 협의 등

Ⅲ. 2023년도 예산

◆ 2021~2022 예산계획 및 실적을 기본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반영하여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균형예산으로 수립(다만 계리사법 제정 추진에 따른 법무용역 비용 8천만 원 지출 시, 지출 7천 6백만 원 초과로 일부 적립금 사용이 예상됨)

과목	2023년도(기준)			2022년도(비교)		
	예산	전년 예산대비 증감률	전년 실적대비 증감률	예산	실적	집행률
1. 수입						
가. 연회비	674,000,000	1.40%	0.9%	665,000,000	668,100,000	100.5%
나. 교육사업	140,000,000	△15.2%	39.5%	165,000,000	100,349,000	60.8%
다. 기타수입	191,000,000	49.80%	209.9%	127,496,000	61,641,000	48.3%
수입 합계	1,005,000,000	5.0%	21.1%	957,496,000	830,090,000	86.7%
2. 지출						
가. 교육사업비	157,839,000	0.30%	16.6%	157,300,000	135,365,000	86.1%
나. 일반사업비	389,000,000 (469,000,000)	12.1% (35.2%)	27.6% (53.8%)	347,000,000	304,943,000	87.9%
다. 인건비	337,453,000	5.1%	8.3%	321,051,000	311,517,000	97.0%
라. 일반관리비	116,740,000	△4.4%	54.20%	122,140,000	75,709,000	62.0%
지출 합계	1,001,032 (1,081,032)	5.7% (14.1%)	21.0% (30.7%)	947,491,000	827,534,000	87.3%
수지차	3,968 (△76,032)	-	-	10,005,000	2,556,000	-

※ 괄호 안은 계리사법 제정 관련 외부 법무법인 용역 발의비용 8천만 원 포함 시 금액임

- **(코로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으나,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예상 되는 바 과거 개최되지 못했던 행사(심포지엄 등) 재개 및 IAA 호주 총회 참가 등 정상적인 활동을 전제로 예산 계획 수립
- **(교육)** 위드-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 실적대비 수입은 약 4천만 원, 지출은 약 2천 2백만 원 증액 편성

* 선임계리사 및 지원조직에 대한 교육 의무화 시 수입 및 지출은 증가할 수 있음

- **(일반사업비 - 국제)** 2024년 IAA 서울총회 홍보를 위한 호주 총회 대규모 파견 등 전년 지출 대비 약 3천만 원 증액 편성
- **(일반사업비 - 행사 등)** IFRS17 시행 및 코로나19 종식을 고려하여 6월 총회 개최 및 저연차 세미나, 송년회, 합격자 OT 등 재개로 인한 행사비용 약 5천 5백만 원 증액 편성
- **(인건비)** 물가 상승률을 최소로 고려한 기존 직원 급여 인상(약 3% 내외) 및 4대 보험료 인상분 반영 및 계리사 등록업무 이관 시 전담 직원 1명 추가 채용 필요로 전년 대비 2천 6백만 원 증액 편성
- **(일반관리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 내외로 증액하고 계리사 등록업무 이관에 대비하여 홈페이지 개편비용 3천 5백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실적대비 4천 1백만 원 증액 편성
- **(계리사법 법무법인 용역비)** 계리사법 추진에 따른 법무법인 용역비용 중 착수금(5천5백만 원)은 2022년 예산절감액 중에서 지출 할 예정이나, 2023년 법 발의에 따른 비용(약 8천만 원)은 적립금 또는 별도의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예정임

IV.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1. **(계리실무기준원)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 확립**

1

계리실무기준위원회

- **(실무기준)** IFRS17 및 K-ICS 도입에 따라 본회가 관련 실무기준, 매뉴얼 등을 제정·공시·관리하는 주체로서 전문성·객관성·독립성 등을 갖춘 자율규제기구 역할 확립
 - 각 작업반, 관련 위원회에서 상정된 실무기준, 매뉴얼 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심의·공시 업무 수행
 - IFRS17 도입에 따른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무매뉴얼' 개정 및 자율규제로서의 역할 강화
 - 계리법인 등의 K-ICS 검토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됨에 따라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 매뉴얼 제정 등(계리법인, RM 위원회와 연계)

2

보험회계위원회

- **(계리보고서)** IFRS17 도입에 따른 계리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계리보고서(Actuarial Report) 표준안 제시 및 전파
 - 실무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작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연계
- **(교육/세미나)** IFRS17 등 보험회계 관련 전문·실무적인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한 회원 전파
 - IFRS17 계리 실무 과정 온라인 교육 추진(전 회원 대상)
 - IFRS17 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세미나 및 임원 대상 조찬회 개최
- **(IAC)** 국제보험회계위원회 활동을 통한 국제 영향력 강화
 - IAC 참석, 아젠다 follow-up 및 한국 의견 개진(필요 시)

3

리스크관리위원회

- **(리스크연구)** 보험산업 리스크 및 신제도(IFRS17, K-ICS) 하에서의 공시, 내부모형, 데이터분석 등 리스크 관련 주제로 한 연구 진행
 - 해외 리스크 관련 전문 자료 번역, 교육 및 세미나 등 연계 추진 방안 병행 고려
- **(ISAP)** 리스크 관련 국제계리실무기준(ISAP 7) 번역 및 유용성 검토

4

가정관리위원회

- **(가정 실무기준)** 현재 공시 중인 ‘IFRS17 계리적 가정 실무기준’ 개정 의견 수렴 및 점검
 - 계리적 가정 해석 및 적용사례 부분은 지속 보완·업데이트

5

상품위원회

- **(IFRS17)** 모델 거버넌스를 반영한 각종 상품 이슈 사항 점검
 - IFRS17 시행 시, KSAP1에서 언급되는 ‘모델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바, 이와 관련한 각종 상품 이슈에 대한 논의
 - IFRS17을 반영한 기초서류 개정(안) 마련, IFRS17 하에서의 상품 수익성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등

2. **(계리연수원) 회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 중심의 연수 제공**

1

교육위원회

- **(IFRS17&K-ICS)** 감독당국에서 발표된 IFRS17 및 K-ICS 업무 해설서 등을 바탕으로 공식용어 및 회계처리 해설과 실무사례를 공유하는 강의 제공
 - IFRS 17 도입 및 정착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관련 실무 교육과정 개설
 - K-ICS(신지급여력제도) 제도를 이해하고, 이슈사항을 공유하는 등 실무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개설(부채평가방식, 리스크 종류 및 측정방식 등에 대한 교육 등)

- **(맞춤형 연수)** 교육 대상자를 분류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
 - 선임계리사 및 선임계리지원조직을 위한 新제도 연계 검증 교육
 - 선임계리사 지원인력의 신제도 관련 업무이해도를 높이는 각 검증방식에 대한 교육(생명/손해, 신입/경력으로 나누어 개설)
 - 선임계리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개설
 - 신입회원 대상 맞춤형 기본, 필수 교육과정 제공
 - 각 생손보사의 신입직원대상 개별 직무 훈련 부담 경감
 -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이론 및 실습중심 교육 제공
 - 보험산업 전문인력으로서의 보험계리사 프로페셔널리즘 정립

2

시험위원회

- **(실라버스)** 제도 개정 이후, 시험 출제 데이터 및 IFRS17 등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실라버스 업데이트
 - 과목별 업계·학계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라버스 현실화
 - 이후, 실라버스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및 시험 출제 당국에 실라버스 적극 활용 건의

- **(제도개선)** 국제적 정합성 및 계리사 전문성의 지속 확보를 위한 시험 제도 개선 건의(現 시험제도 개편 9년 차)
 - 해외 선진 계리사회 자료 조사 및 벤치마킹, 국내 시험 응시자 피드백 등을 통한 시험 제도 개선 건의(정책·감독 당국)

3

프로페셔널위원회

- **(프로페셔널리즘)**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프로페셔널리즘 정립
 - 전문가 의식과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프로페셔널리즘 확립(합격자 오리엔테이션과도 연계 필요)

3. **(회원서비스본부) 회원 눈높이에 맞는 회원서비스 제공**

1

회원관리위원회

- **(참여도 증진)** 코로나가 축소됨에 따라 회원의 소속감 고취 및 교류 확대 등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 재가동
 - 심포지엄, 합격자 OT, 송년회 등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된 주요 행사를 기존과 같이 오프라인 행사로 추진
 - 시니어 회원 모임을 주선하여 시니어 회원 간의 소속감 고취 및 회 발전방안에 대한 해안 습득
 - 단체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소속감 고취 및 회원의 사회적 책임 의식 제고(공원 또는 해양 쓰레기 줍기, 농촌 봉사활동, 연탄 나르기 등)
 - 개인 정보 동의 여부에 따른 회원 정보를 공유하는 '회원 주소록 공유'를 도입하여 회원 간 업무 협업 및 교류 증진을 위한 회원 정보 공유(미국계리사회 참고)
- **(회원확대)** 회 외형 확장을 위한 회원 확대 방안 모색
 - 아직 회원사로 가입 되지 않은 보험사, 재보험사, 계리법인, 컨설팅사, 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 추진

구분	법인회원 추진 대상 기관
손해보험사	ACE,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재보험사	윈헨리, 스위스리, 스코르리, 퍼시픽리 등
계리법인	GS, 글래스, 나라, 선금융, 프라임 등
회계법인	삼일, 안진 등

컨설팅사	AON, FIS, RNA, SIG, 에이티커니, 윌리스타워스왓슨 등
유관기관	화재보험협회, 기타 공제회 등

- **(홈페이지 개편)** 회원의 홈페이지 정보 접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편(등록업무 이관 준비와 연계)
 - 정보 전달 위주의 가독성 있는 메뉴 구성으로 개편하고 회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체 검색 기능 도입
 - 홈페이지를 처음 접하는 비회원(계리관련 학생 등)도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리뉴얼
 - 체계적인 계리사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홍보위원회

- **(대내홍보)** 홈페이지, 뉴스레터, 카카오톡 등 활성화된 본회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회 추진 사업, 운영 성과, 주요 이슈 등을 수시 홍보(회원 관심 환기 및 자발적 참여 유도)
 - 연초 2023 업무계획 적극 홍보(기존 경영정보 공개에 포함하여 안내되고 있었으나 연간 행사, 교육 계획 등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회원 대상 안내)
 - 회원 매뉴얼 등을 취합하여 회원 대상 안내 및 홍보(연간 2회 이상) 및 뉴스레터 콘텐츠 강화(소식 전달 콘텐츠 위주에서 정보 전달 기능 확대)
 - 전체 회원 대상 심포지엄(6월), 저연차 회원 대상 심포지엄(9월) 개최를 통한 계리사회 사업 홍보 등
- **(대외홍보)** 대중의 계리사 인식 제고, 시험 신규 유입 증진 등을 위하여 계리사(회)와 관련된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언론 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계리사회 주요 사업 적극 홍보)

- ‘계리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등록 추진 및 주요 포털 사이트 계리사 관련 정보 수정(본회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와 연계 등)
 - * ‘보험계리사’와 ‘계리사’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대중들의 혼란을 야기함. 표준국어대사전의 ‘계리사’는 회계사의 전용어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계리사’는 참여형 사전인 우리샘말사전에만 등록되어 있음
- 2022년 성공적으로 개최된 보험업계 임원 조찬 세미나를 정례 행사로 정착하여 회 인지도 제고
- 계리사 시험 인원 증진을 위한 대학 캠퍼스 직무 상담 및 홍보, 초·중·고 학생 대상 직업 소개 등도 함께 연계(제3기 IAK 서포터즈 역할 부여)

3

윤리위원회

- **(윤리기준)** 2013년 제정된 본회 윤리기준 정비 및 사회적 책임 증대에 따른 회원 윤리의식 고취 방안 모색
 - 국내 전문가 단체 및 해외 선진계리사회 등의 윤리기준, 윤리의식 등에 대한 자료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 회원 대상 온라인 윤리교육 제공(무료 교육, 최소 2년에 1회 이수 권고)

4. **(국제협력단)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1

국제지원위원회

- **(서울총회)** ‘2024 국제계리사회(IAA) 서울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 돌입
 - IAA 서울 총회 개최가 확정(2024년 5월)됨에 따라 ‘2024 IAA 서울 총회 준비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준비 체계 구축
 - 직전 행사인 IAA 호주 총회(2023년 5월)에 홍보단을 파견하여 서울 총회 참석 적극 홍보
 - 국제회의 지원 제도(MICE)를 갖춘 한국관광공사 및 서울관광재단 등과도 긴밀 협업 예정
 - **(국제회의)** 2023년에 예정된 국제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한국 보험산업의 이슈를 공유하고, 필요시 적극 의견 개진
 - IAA 총회 : 2회 개최 예정(5월 호주, 10월 미정)
 - IAA 이사회 및 위원회 현안 심의, 국제 계리 이슈 논의 등
 - 국제계리총회(ICA) : 1회 개최 예정(5월 호주)
 - 4년마다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계리 관련 다양한 포럼, 세미나 등이 진행
 - 아시아계리사회(AsAA) 미팅 : 1회 개최 예정(시기 미정)
 - AsAA 이사회 현안 심의, 아시아 계리 이슈 논의 등
 - 2023년 아시아계리사총회(AAC)는 ICA로 대체
- ※ 한국은 2027년 AAC 개최국으로 확정됨

- **(국제협력)** 선진계리사회와 네트워킹을 강화, 상호협력 체계를 확대하여 한국 보험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도모
 - 미국계리사회(SOA) : 연간 2회 이상 미팅을 통한 협업 논의
 - 본회와 SOA의 공동 포럼·세미나 개최 검토
 - 본회 정회원의 SOA VEE 인정 과목 확대 추진
 - 국내 보험사가 진출해 있는 동남아 국가의 계리사를 초청하여 선진 계리 기법 등을 전파하고 교류 확대 계기 등으로 마련
 - 이외에도 일본, 캐나다, 호주계리사회 등과 교류 확대
- **(회원홍보)** 본회 회원에게 국제 동향 수시 업데이트 및 공유
 - 해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 행사, 세미나, 회의 및 포럼 등을 본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매월 뉴스레터에 국제동향을 기고하여 국제 이슈 전파 등

5. **[계리연구원] 연구 기능 확대를 통한 전문가 단체 역할 강화**

1

계리학연구위원회

- **(역할확대)** 위원회 책정 예산을 증액하고 역할 확대를 통하여 학술·연구 부문을 강화, 학회 수준으로 외형 확장
 - 계리 관련 논문, 용역, 연구 프로젝트(할인율 등)를 관장하고 다양한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타 위원회와 적극 연계)
 - 또한 보험학회, 리스크관리학회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담당하며 대외 업무 수행(보험연합학술대회, 공동 세미나 등 주관)

- **(연구지원)** 전문회원 등을 대상으로 계리연구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계리 분야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 2021년도 2건, 2022년도 2건이 연구지원을 받아 논문 등재, 세미나 발제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 2023년에는 최대 3건의 과제 공모를 통해 연구 활성화 추진

6. **(기타) 효율적인 회 운영 체계 구축**

1

재무위원회

- **(재무건전성)** 효율적 예산 집행, 계획적 업무추진 등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
 - 기존 저조한 자금 운용 수익률을 개선하여 재원 확충(이율 1% 대 → 약 4% 대, 이자 수입 약 4,000만원 증액 예정)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회 운영 및 재무 건전성 확립

2

볼런티어위원회

- **(Volunteer)** Volunteer 관련 운영 방안 정립, 제반 기준 정비 등을 통한 Volunteer 제도 활성화 도모
 - Volunteer Credit 기준을 확장하여 참여 활성화 도모(역할 부문)

3

사무처

- **(등록업무)** 2022년 11월 배포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금융위)에 의거하여 계리사 등록 업무 이관 준비(감독원→계리사회)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일부 발췌, 17P]

③ 보험계리사 등록업무 이관(시행령 개정 23년 1분기 中)

- 자율규제 기능 확대 등을 위해 보험계리사 등록업무를 금감원 → 보험계리사회로 이관
- ※ 他전문자격 사례(회계사 등록 : 회계사회, 세무사 등록: 세무사회)와 동일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내규 등을 정비하며, 등록 업무 전담 인력을 신규 채용 하는 등 차질 없이 이관 준비 예정
- **(계리사법)** 계리사 제도를 별도 법률로 제정하여 계리사 제도 발전과 동시에 계리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보험 등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 2024년 제정을 목표로 추진, 계리사와 성격이 유사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및 관세사 등의 법령 벤치마킹
- **(보수교육)** 2023년 IFRS17 및 K-ICS 시행에 따라 계리사의 전문성 향상 필수, 타 전문가 단체(공인회계사 등)와 같이 연간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
 - 계리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통해 전문 능력을 배양하여 계리사가 금융 전문 인력으로서 새로운 제도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계리사 보수교육 운영(안)]

구분	내용
이수시간	· 연간 30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과목	(1) 계리 관련 윤리교육, (2) 국제계리실무기준(KSAP) 준수 (3) 계리 실무 등
교육기관	· 본회 계리연수원 · 계리사 소속 기관 등

- **(실무수습기관)** 신규 합격 계리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성 ·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양성, 보험 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체계 정착

* 계리사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타 전문가 실무수습 프로그램 적극 벤치마킹

- 계리사와 동일한 법령 체계(보험업법 등)를 가지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2021년 제도개선을 통해 보수교육 의무화(예정) 및 손해사정사회 실무수습기관 지정(완료)
- 보험사·계리법인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계리사 보수교육 및 실무수습을 계리사회를 통해 진행하여 보험사·계리법인 등의 부담 경감

□ **(회 이전)** 본회가 임차 중인 코리안리빌딩의 재건축(2023년)이 확정, 임차 계약 종료(예정)에 따른 회 이전 방안 마련

본회 임차 계약 현황

면적		보증금	월세 (VAT, 관리비 포함)
공급 : 95평 (강의실 : 39평)	전용 : 64평 (강의실 : 26평)	7,100만원	1,150만원/월 (강의실 : 500만원/월)

※ 현재 강의실 최대 수용 인원은 60명 수준

- 실리적·효율적 차원에서 회원,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한 후, 최종 이전 방안 마련 예정
- **(역량강화)** 사무처 인력 정규화로 근속 연수가 증가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증진되었으며, 담당 업무 별 필요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업무 수행 환경 마련
- 국제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회화 능력, 온라인 플랫폼 활용 능력, 회계·세무 부문 이해도 제고 등의 개발 지원을 통한 사무처 역량 강화 추진